北 "임대료 31배·임금 4배 인상"

남북 개성회담 실무회담…年 인상률도 10~20% 요구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의 약 4배인 월 300달러로,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 수준인 5억달러로 각각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려 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 속에 주문량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를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연 인상률은 10~20%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

북측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의 토지임대료도 5억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다.

다만 북한 대표단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대표단은 이날로 74일째 억류된 유씨의 조속한 석방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남북은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연합뉴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이끄는 우리 대표단이 11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북측과의 실무회담을 마친 뒤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통해 입경한 뒤 회담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기금수·화물검색·금융제재 대폭 강화"

안보리 대북제재안 공식 채택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강경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계획이다.

유엔 관계자는 10일 결의안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돼 회람된 후 안보리 내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주요국 회의에서 합의된 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사국이 표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표결로 갈 경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돼,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한 이 안은 채택이 확실시 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진영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 임기 2년의 이사국에 리비아와 베트남 등 친북적 입장을 취해온 국가가 일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전날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이 결의안은 전문과 34개조로 구성돼 있고, 북한에 대한 기존 결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토대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초안은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연합뉴스

원화 가치 하락에 귀국 조선족 급증

옌볜 유입 외화 송금액도 뚝

세계 금융 위기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한국에서 귀국하는 조선족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족들이 보내오는 송금액도 크게 줄었다.

신화통신 11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 금융 위기가 촉발된 지난해 9월 이후 지난 1월까지 옌볜에 귀향한 노무자는 모두 1만1천8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인 1만3천여명이 한국에서 귀국한 해외 노무자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한국 노무자들이 귀국하는 주된 이유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에서 어렵사리 일해도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국 돈 100만원이면 인민폐 6천위안을 환전할 수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지난해 말께 4천위안으로 뚝 떨어졌고 다소 회복된 지금도 5천400위안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아 이례적으로 노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돌아오는 조선족들이 늘고 있다.

귀국 조선족 증가와 함께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내 조선족들이 송금을 미루면서 옌볜지역 외화 유입도 크게 감소했다. /연합뉴스

"北 억류 유씨 별일없이 잘 있다"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밝혀

북한 측이 11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이날로 74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주재원 유모씨에 대해 "별일없이 잘 있다"며 신변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가 밝혔다.

김 상근회담대표는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실무회담을 마치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에서 유씨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북측에서는 '별일없이 잘있다. 기다리면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유씨를 접견하지는 못했다"고 소개한 뒤 "'유씨가 개성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북측은 '편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측이 자기 형사법으로 유씨를 처리하겠다고 했느냐'는 물음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해 유씨가 남북 출입·체류 관련 합의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유씨는 지난 3월 30일 체제비난,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외부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억류돼 있다.

"北, 美 여기자 실제 노동 시킬 것"

법무부관계자, 北 형 집행실태 설명

북한 법원에서 '조선민족 적대죄' 등으로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 2명은 조만간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여느 수형자처럼 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 교정본부 김안식 서기관이 전망했다.

김 서기관은 11일 한국행정학회가 서울 광화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북한사회의 이해 : 범죄와 교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우리도 (수형자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일단 형이 확정되면 노동을 시킨다"며 북한도 예외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여기자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의 종류로 그는 봉제 작업이나 가방, 구두 만드는 일 등을 예시했다. 인민보안성 교화국이 관리하는 교화소에서는 모든 수감자들이 농장, 건설, 봉제, 신발, 가죽가방 등의 작업에 동원된다는 것.

노동교화소 생활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며, 저녁식사후 1시간반동안 공장 단위별로 생활총화 시간을 갖는데 이때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읽고 외우거나, 노동신문의 기사를 읽고, 또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시간도 갖는다. /연합뉴스

'김정운 사진' 한국 정부 공신력 비화 조짐

日 TV아사히 오보 사과 "한국 당국서 입수" 밝혀

일본의 TV아사히가 11일 '김정운 사진' 오보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 사진을 "한국 당국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던 사안이 한국 정부의 공신력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TV아사히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11일 "'한국 당국'이 국정원이라면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TV아사히는 10일 밤10시 뉴스에서 뿐 아니라 11일 낮12시 뉴스에서도 거듭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돼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게 됐다.

TV아사히가 김정운의 최근 사진이라고 10일 공개한 얼굴 사진(왼쪽)이 인터넷 다음 한 카페지기 배모씨의 사진과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의 카페에 들어가면 김정일 위원장과 매우 흡사한 배모씨가 원두막에 앉아있는 사진(오른쪽)이 있으며, TV아사히가 방송한 사진 배경도 배씨의 사진과 똑같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11일 일본의 TV아사히가 전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의 최근 모습이라며 보도한 사진을 한국 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TV아사히의 '한국 당국 관계자'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TV아사히측은 신뢰도에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